

# 연등 만들고 예배 드리고 가족이 '쑥쑥'

## 월정사 '가족 주말 수련회' 개최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도 마련

가족 단어 자체만으로도 따뜻하고 애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한 번 어긋나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서로에게 주기도 한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 단기출가학교로 유명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3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되는 '가족 주말 수련회'.

월정사 가족 주말 수련회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전나무 숲길 산책과 연꽃등 만들기가 그것이다. 가족끼리 천년의 숲길이 살아있는 전나무 숲길을 걸어보면 그 맛을 알 수 있다. 특별한 말은 건네지 않아도 다정하게 맞닿은 손에서 퍼지는 온기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단어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연꽃등을 같이 만들면 가족간의 사랑 뿐 아니라 신심도 높일 수 있다. 오순도순 연꽃등을 만들며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완성된 연꽃등을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는 좋은 기회도 된다.

뿐만 아니라 새벽예불과 원각경 독송, 108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벽 도량식 소리에 무명을 떨치며 청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원각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108배를 하면서 하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발우공양을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의 거부감도 느낄 수 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너무 많이 탐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반야심경을 사경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다.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는 팔각 구층 석탑을 돌면서 자신이 가진 것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도 발원하는 여유를 갖는다.

스님과 함께 하는 다담(談談)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스님과 다담, 입안 가득한 차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가족 주말 수련회 참가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원.

한편, 월정사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의 이론과 현장 답사를 겸한 박물관 문화대학 강좌를 올 4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개설한다. 모집인원은 50명. 인터넷(www.org) 접수도 가능하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단어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연꽃등을 같이 만들면 가족간의 사랑 뿐 아니라 신심도 높일 수 있다. 오순도순 연꽃등을 만들며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완성된 연꽃등을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는 좋은 기회도 된다.

뿐만 아니라 새벽예불과 원각경 독송, 108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벽 도량식 소리에 무명을 떨치며 청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원각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108배를 하면서 하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발우공양을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의 거부감도 느낄 수 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 봉서사 석산개발로 훼손위기



원주군청 앞마당에 진행된 집회에서 태고종교부부장 법원 선임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교구는 물론 전 불교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원 선임도 석산개발 반대연설에서 "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며 "개발업자 이익보다 자연과 수환경 보호로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산 봉서골 석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원주군이 봉서사 일구 석산을 개발토록 허가하자 봉서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구성되었으며, 300일 가까이 석산개발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전북교구는 물론 전 불교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원 선임도 석산개발 반대연설에서 "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몸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며 "개발업자 이익보다 자연과 수환경 보호로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산 봉서골 석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원주군이 봉서사 일구 석산을 개발토록 허가하자 봉서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구성되었으며, 300일 가까이 석산개발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 국운옹장 발원기도 회향 영월 범흥사 3월 5일

영월 범흥사(주지 도완)는 지난 2월 3일부터 진행해온 '국민의식 통합 및 국운옹장 발원 21일 특별 정조신중기도'를 3월 5일 회향했다.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범흥사 저택에서 진행된 회향법회에서 주지 도완 스님은 "기초에 진행되던 정초기도와는 달리 올해에는 불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광주불교회관 시설 기공식 20여 신행단체 입주 예정



3월 10일 열린 광주불교회관 내부 시설 기공식.

광주불교의 숙원사업인 광주불교회관을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개관할 전망이다. 광주불교 사업연합회(회장 혜향)는 3월 10일 '광주불교회관 시설기공식'을 갖고 조계종 원로의원 천은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상 및 후불탱화 봉안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불교사업원은 이날 기공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불교회관을 대법당과 지역 신행단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꾸미기로 결의했다. 광주불교사업원 회장 혜향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불교회관은 승가와 재가가 모여 포교는 물론 불교의 대사 회합을 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며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신행단체가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회관은 2002년 착공해 지난해 준공했으며 2층 연건평 200평 규모로 대법당과 회의실을 비롯해 11개 사무실이 들어선다. 사무실은 사업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신행단체가 사용하게 된다. 이준엽 기자

## 증심사 '108사찰 참배단' 출범

사찰순례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웃을 돕는 '108사찰 참배' 운동이 전개된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진화)는 올바른 성지순례를 위해 '108 사찰 참배'단을 모집하며 오는 3월 25일 첫 순례로 해인사, 백련암, 원당암 삼사순례를 갖는다.

증심사가 펼치는 108사찰 참배운동은 매달 3개 사찰씩 108개 사찰을 3년간 참배하며 참배후 남은 기금을 모아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주지 진화 스님은 "불교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으로 주제와 테마를 갖고 전국 사찰을 참배하고자 한다"며 "순례는 기도와 법화로 진행되며 보시행을 실천하는 올바른 성지순례 문화로 정착시켜가겠다"고 말했다. (062)226-0108

이준엽 기자

## 제주 원명선원 참선강좌 '정진법회' 신설

제주 원명선원(원장 대호)이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강좌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참선강좌는 1년 교육과정의 참선대학과 선불장. 참선대학은 11년 전 열렸던 일요일참선법회를 확대한 강좌로,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참선대학 과정에는 2·4주 일요일 중 한주를 정해 집중수행하는 '정진법회'를 신설해 포함시켰다.

선불장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참선대학보다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원명선원 대호 스님의 지도 아래 이론과 실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학습내용은 생활과 선, 종도, 연기, 지혜와 삼매, 화두 참구법, 공안 등이다. 개강은 참선대학이 3월27일, 선불장은 3월28일이며, 25일까지 모집한다. (064)755-3322

한명우 기자

##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보수

정림사지5층석탑 등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정림사지5층석탑(국보 제9호), 정림사지석불좌상(보물 제108호), 장하리3층석탑(보물 제184호), 무량사5층석탑(보물 제185호), 홍양리 5층석탑(도지정 유적문화재) 등 5개 석조문화재에 대해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정비키로 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특히 정림사지5층석탑과 무량사5층석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림사지석불좌상은 석재 보존처리 및 좌대 보수를, 장하리3층석탑과 홍양리5층석탑은 석재 보수 방지를 위한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남 정심사 성철스님 가르침 잇는 '정진도량'

### 성철스님 가르침 잇는 '정진도량'



하남 정심사가 참선수행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원택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진행된 2002년 성도제일 법회 모습.

삼국시대,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세웠던 검단 선사(가)가 은거했다 해서 명명된 경기도 하남 '검단산'. 검단산사의 선기(禪氣)를 간직한 듯 묵묵하게 서있는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정심사(주지 원영)는 오늘도 서울동부지역 수행근본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1986년 창건한 정심사는 평소 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모토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심사에는 유달리 기도 프로그램이 많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능엄주기도

이루어진다. 40여 평의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평균 50여명이 방부를 들이 정진장은 어느 선방 못지않은 구도 열기가 가득하다.

정심사 총무 일주 스님은 "사부대중이 매일 안거(安居)에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고 있다"며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심사가 신도들의 수행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해외 포교를 위해 전 사부대중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심사는 하남 지역 결식아동 20명

## 능엄주, 아비라기도 등 '기도·수행코스' 다양 결식아동돕기,美 보리사 창건...포교에 진력

를 비롯해 삼천배기도(넷째 토요일 오후 2-10시 30분), 백만배기도(매월 음력 20일) 입제는 모든 신도들이 참여하는 '기본수행코스'다. 정심사는 또 매년 음력 1월, 4월, 7월, 10월 12일부터 3박 4일간의 아비라기도를 진행한 다. 아비라기도는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뒤로 나온 두 발을 교차한 상태에서 '옴 아비라 흠삼 스바하' 진언을 하는 것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신도들에게 적극 권유한 기도법이다.

정심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實修)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년 음력 2월, 5월, 8월,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참선은 시민 선방인 '검단선원'에서

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남시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2003년에는 뉴욕에 보리사를 창건해 국제포교는 물론 국내 학생들의 어학선수를 돕고 있다. 보리사에서 불법홍포에 진력하고 있는 원영 스님은 "국내의 불자들이 신생활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심사는 새해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지역 사정상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고 있지만 어린이 법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031)791-7732

유철주 기자

#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력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양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